

지역 매아리

부안군, 참뽕요리대회 참가자 모집

부안의 맛과 멋을 뽐내는 제3회 부안참뽕요리 경연대회가 제8회 부안국화빛축제와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광장에서 펼쳐진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부안대표 특화작목인 오디뽕과 특산품을 이용하여 뽕 비빔밥과 뽕 정식을 어울리는 찬과 후식을 주 과제로 진행될 이번 경연대회에 함께 할 참가자를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향기로운 국화향 속에서 열리는 이번 참뽕요리 경연대회에 전국 요리애호가와 전북도민, 부안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비늘요리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되어 11월 2일 부안은 입과 눈이 즐거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유기농쌀생산단지 '벼 베기 시연행사' 열어

정읍시가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 일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벼 베기 시연행사를 17일 이평면 황토현친환경농업단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사)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이동희) 회장, 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유기농 벼'를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유 시장은 이날 콤바인에 직접 올라 벼를 수확했다.

벼 베기 시연을 마친 유진섭 시장은 "쌀시장 개방과 쌀 소비량 감소 등 공급과잉에 따른 쌀시장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농가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인 친환경 재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에서는 고품질 유기농 쌀의 생산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2008년부터 친환경 유기농쌀생산단지 216ha를 조성하여 전량 계약재배 하고 있으며 연간 유기농 쌀 1,516톤을 생산한다. 생산된 쌀은 정읍시와 서울 소재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생협 등을 통해 판매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팔경' 부안서 즐기자

변산 노을축제 20~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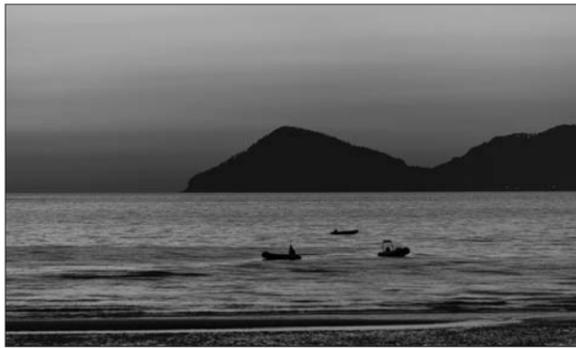
승마체험 · 영화상영 등 다채

한국 팔경(八景)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변산 노을을 테마로 한 2018 변산 노을 축제가 이번 주말인 20일부터 21일까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가족단위 캠핑, 맨손전어 잡기, 승마체험, 무료 영화상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첫날인 20일 오후 5시부터 1·2부로 나눠 진행된 노을 어울림 · 한미당 공연에는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 추억의 포크송 가수 한승기, 김학래 등의 축하공연과 캠프파이어, 화려한 불꽃놀이 등이 한 데 어우러져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한 가을밤의 정취를 전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산해수욕장 사



아름다운 '변산 노을'을 테마로 한 2018 변산 노을 축제가 이번 주말인 20일부터 21일까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계절 정제성 확립과 가을철 이영객,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 및 대표 관광지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가을철이면 떠오르는 부안군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심플 '노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 모양성제' 보러 오세요

대규모거리퍼레이드 · 성황제 · 무료급식 등 다채

고창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 '제45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17일에는 14개 읍·면 농악단과 고을기기사단, 취타대, 호위군관, 기관사화단체장과 군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실내체육관에서 군정, 터미널, 고창읍성으로 향하는 대규모 '거리퍼레이드'가 열려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조선 단종(1453년)때 전라도 19개 군·현의 주민들이 참여한 고창읍성의 축성에 담긴 유비무환과 지역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현존하는 4개 시·도, 13개 시·군의 상징기가 함께 나누는 고을기 올림행

사가 열려 지역간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축제 둘째날인 오늘도 성황제와 원님부임행사, 한국의식업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무료급식 행사를 비롯해 (사)고창음악보존회의 거리극축제 '고창으로 GO!GO!GO!',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주최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가수 정수라 해바라기 이치현 등이 출연하는 '모양성 전국 가요제'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한편 '제45회 고창 모양성제'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 보고회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목표 미달성 팀장(10명)과 지표담당자(10명)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조치로 비교적 부진한 지표 10개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중 감사과장은 이 자리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외부의 평가가 좋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72명의 지표담당자들이 평가에 만전을 기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시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평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간 정읍시는 9월에 지표담당자 40명에 대해 2박3일간 워크숍을 실시했고, 우수실적 달성 지표담당자에게 근무평정 시 가점부여와 성과평가 시 부서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2017년 평가에서 도내 2위를 차지해 연말에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명예 빛낸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한다"

단풍미인씨름단, 전국체전 7개 체급 중 5개 메달 획득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참가 7개 체급 중 5개 체급에서 입상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단을 초청, 승리를 축하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을 찾은 박희연 감독과 1위를 차지한 박정의(전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현재 정읍시청 문화체육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선수 등 선수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같은 달은 실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개인은 물론 정읍의 명예를 빛낸 선수들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다음 기회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된 훈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은 이번 체전에 전라북도 일반부 대표 선수단으로 출전했다. 16일 정읍



유진섭 정읍시장이 전국체전에 참가 7개 체급 중 5개 체급에서 입상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단을 초청, 승리를 축하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씨름 일반부 체급별 7개 체급 중 모두 5개 체급에서 메달(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을 획득했다.

특히 전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선수이자 현재 정읍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정의 선수는 역사급 105kg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손희찬

선수(경장급 75kg)와 황성희 선수(용장급 90kg)는 은메달, 오준영 선수(소장급 80kg)와 최인호 선수(장사급 140kg)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1월 창단된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은 올해 들어 서만도 각종 대회에서 6번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직자 내고향 부안바로알기 전 직원 교육

부안군이 내 고향 부안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로서 역할 및 책임을 다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안 바로 알기 교육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부안 바로 알기 교육은 17일과 오는 11월 13일 2차례에 걸쳐 부안군 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공직자가 우리 지역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교육은 부안군 문화해설사와 함께 호벌치 전정비, 반계서당, 내소사, 수성당 등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부안군 이경신 자치행정과장은 "이



번 교육의 목적은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 현장 견학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찾아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부안,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고자 함에 있다"며 "추후 공직자는 물론 부안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